

신도시주의 운동과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에 대한 전망

김선일 (송실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강사)

I. 서론

II. 본론

1. 신도시주의 운동이란 무엇인가
2. 서비비아와 그 문제점들
 - 1) 환경오염
 - 2) 청소년 문제
 - 3) 약자들을 위한 배려 부족
 - 4) 공공성의 부재
 - 5) 사회 자본의 약화
3. 신도시주의 운동의 대안
 - 1) 전통적 이웃마을의 설계
 - 2) 신도시주의의 수용
4. 신도시주의의 한국적 상관성
 - 1) 공공선의 실종
 - 2) 지역성의 회복
 - 3) 최대공간과 최소공간의 양극화
 - 4) 거리와 마당의 활용
5. 신도시주의와 기독교의 만남
 - 1) 공동체로서의 교회
 - 2) 열린공간의 선교적 기능
 - 3) 예술로서의 전도
 - 4) 회심과 사회자본

III. 결론

• ABSTRACT •

This article attempts to spell out the characteristics of New Urbanism, the architecture movement that calls for interdependence among residents, with neighborhoods where shops and home coexist, and streets and alleys are gathering face-to-face relationships for residents in a postmodern America.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furthermore to explore its implications for Christian witness in a Korean context. New Urbanism has become a mantra for people interested in restoring urban centers and reconfiguring suburban sprawl. I also note that some Christian intellectuals are adopting the movement. It can be argued that some of the principles of New Urbanism serves as a perfect parallel for what we think the church should be involved in.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t is equally important to explore whether New Urbanism has a relevance for a Korean context to which this article turns to at the end of its discussion.

As New Urbanism argues, this article cites suburban sprawl as an isolating factor for American people and many churches. The sprawl began in part because of federal subsidies after World War II. The low-interest housing loans the government provided the veterans returning from the war applied only to new houses. The suburbs were born, neatly dividing people by economic class, which has caused isolations and disconnection between people while reducing social capitals. In some senses, churches followed people into the suburbs and adapted suburban development patterns, buying sizable plots of land, erecting a church and surrounding it with a surface parking lot. Churches then offered multiple programs to draw members, who drove to the site leaving neighborhood behind.

This sprawl makes it more difficult for churches to achieve their ultimate objectives: build up of inclusive and redemptive community. As Christians we can advocate for New Urbanist concepts because they force people to share with one another, dwell among their neighbors and allow for a healthy exchange of ideas. Many of the churched people often become a subculture separate from the outside world. They become so involved in church life that they are not involved in their neighborhoods. Then the church has become irrelevant to the community.

Contrariwise, New Urbanism alarms us to engage our community to make the church more relevant to people outside the church. To introduce New Urbanism to Korea, I attempt to describe what we find in New Urbanism parallel to Korean urban planning. I see several commonalities with which both American and Korean societies are struggling with. But there are some marked differences we should take note of. First of all, Korean society has been strongly grounded in communal culture. Second, the geography of Korea with its high-density and small land provides opportunity to avoid the pitfalls that the American suburban sprawl engendered. Third, Koreans have been traditionally apt to share their own spaces in the front yard in addition to creating public spaces like sidewalks and streets. Thus the Korean version of New Urbanism should take this unique Korean cultural traits into account as well.

With these factors in mind, I propose several ideas for Christian missions in light of New Urbanism. The first is a possibility that New Urbanist agenda can serve as the foundations to foster a plausibility structure for making Christian witness more viable through community-making in the local neighborhood. My belief is that a Christian building helps to set a tone for the entire community. The second is the potential of public space to create meaningful interactions between the Christian advocates and potential converts. The third is a way of understanding evangelism as allusive art rather than propositional confrontation because architecture itself transmits a certain message. Lastly, I contend that conversion experience needs to be und(social capital) as well as personal decision. In this way, any serious Christian advocates need to consider hospitality as a means of evangelism by opening their spaces to strangers and inviting the potential converts to experience Christian-shared social capitals.

Keywords: New Urbanism, Evangelism, Church Architecture, City planning, Christian community, Urban Mission,

I. 서론

현대 사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포괄적 도시화라는 공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서구 사회는 산업혁명 이후, 도시에 대규모 산업시설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드는 도시화 현상이 근대 역사의 궤적을 따라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0년대 근대화 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꾸준히 인구유입이 이루어졌으며 대규모의 도시들이 형성되었다. 더 나아가 1990년대 이후로는, 기존의 도시들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부족해진 주택 수요를 감당하고자 인근에 위성 도시 및 신도시, 혹은 대도시 내 뉴타운들의 건설 및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동 서양을 막론하고 도시화는 현대를 사는 이들의 중요한 삶의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이 도시적 삶은 인간의 정서와 관계를 형성하는 주된 영향력을 갖게 된다. 도시는 바로 현대인이 자신의 삶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흔히들 도시의 생활을 거론할 때는 주로 도시인들의 소프트웨어적 구성요소들, 즉 직장 풍속, 취미생활, 쇼핑 형태 등에 집중되곤 했다. 이에 반해 도시가 형성되는 물리적 공간이 갖는 중요성, 즉 도시 형성의 하드웨어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건축물과 도시 조형 및 공간 활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주어진 조건 외에 더 신경을 쓸 여력이 없던 것 같다. 아마도 급속한 근대화와 높은 도시 인구 밀도로 인해 현대 도시인들은 자신의 생존 공간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였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의 주거와 공동체의 물리적 여건인 도시의 공간적 형태는 도시 생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문화생활, 교육, 먹거리, 패션정보 등)과 더불어 동시에 삶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경험을 자르게 정립해준다.

미디어 이론의 선각자인 마셜 맥루한이 선언한 “매체는 메시지이다”¹⁾ 라는 말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의 형(形)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이 아닌, 텔레비전이라는 기기 자체가 우리의 삶과 감각을 혁신적으로 바꾸었듯이, 우리가 받을 디디고 있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 역시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맥루한의 주장대로 집과 도시는 인간관계와 공동사회의 패턴을 확장한 것이기에,²⁾ 도시의 공간적 형태는 인간의 상호교류와 지역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에 있어서 도시의 물리적 공간이 갖는 의미를 조명하며, 이에 대한 교회의 문화 선교적 접목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틀로써 필자는 현대 서구의 (특히 미국의) 도시문화를 비판하며 대안적 도시 운동을 개진하고 있는 신도시주의 운동을 소개할 것이다. 비록 미국의 도시와 한국의 도시 사이에는 많은 문화적 차이들이 있음에도, 세계화라는 대세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도시의 형성이 주로 미국의 영식을 많이 따라가고 있기에 의미 있는 교훈을 주리라 본다. 이는 또한 지역 교회의 선교적 소명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새롭게 조명해줄 것이라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도시화와 그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한 미국 사회에서 최근 도시화의 지역적 구조와 건축 양식이 인간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통적 이웃 구조를 회복하자는 신도시주의(New Urbanism) 운동을 소개하고, 또한 이러한 신도시주의 운동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는 시도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1) 마셜 맥루한,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박정규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23ff.

2) Ibid., 185-186.

한국의 문화지형과 도시 환경에서 신도시주의 운동을 발판으로 삼아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지역 교회의 문화 선교적 대응의 일환으로 본 논문을 자리매김하고자 한다.³⁾

II. 본 론

1. 신도시주의 운동이란 무엇인가?

신도시주의(New Urbanism)는 지난 1980년대 초반부터 건축가와 디자이너, 정치가, 그리고 소수의 종교인들로 이루어진 사회운동으로서 미국식 도시 생활에 대한 전향적 사고를 주장하는 운동이다. 이들은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극심한 개인주의와 소외감, 도덕적 권위의 부재, 청소년의 탈선 등을 떠받치고 있는 도시 생활의 물리적, 지역적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 그 동안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기성 도시들에 유색인종의 대거 유입과 영세민들의 수가 증가함으로 인해 주로 백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교외로 탈피하는 현상이 줄곧 진행되었다.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하며 여유 있는 근교의 주거 공간을 갖는 것은 미국에서는 누구에게나 당연한 인생 여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신도시주의자들은 이러한 도시 근교 문화가 위에 열거한 미국 사회의 각종 고질병들을 양산하는데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전원 공간이

3) 필자는 이러한 의제에 대하여 다음의 논문에서 기초적인 발상을 얻을 수 있었다. 조용훈,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회의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제 10집 (2005): 153-181. 조용훈 교수의 논문이 지역교회가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의 신학적, 실천적 맥락들을 포괄적으로 구상했다면, 필자의 이 글은 그러한 실천 가운데 하나로서 교회의 물리적 공간이 지역 공동체 문화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현상적 고찰이라고 볼 수 있다. 교회의 건축에 대한 논의들이 주로 교회 내부의 영적, 미적 차원에 집중하는 반면, 신도시주의 운동을 통해서 교회의 외부 입지가 인근 지역 공동체의 교류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가에 더욱 주목한다.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동체적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공간의 미학을 추구하는 것이다.⁴⁾

신도시주의 운동은 지난 50년간 진행된 이러한 교외로의 탈출, 즉 서버비아(Suburbia)의 건설이 미국의 도덕적, 정신적 삶을 괴롭혀온 주된 물리적 기반이라고 비판한다. 여기서 “신도시-”(new urban)라는 말은 교외 지역이 아닌 기존의 도시를 새롭게 하자는 것, 즉 사람과 사람이 쉽게 교류할 수 있는 이웃 관계가 회복된 곳으로 바꾸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1950년경 이후로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팽창해온 미국의 ‘전원 도시 확장’ (suburban sprawl)에 대한 반동적 대응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정부는 돌아온 참전 용사들에게 저리 용자로 주택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느꼈으며, 이들을 위해서 물가와 인구밀도가 높은 기존 도시로부터 약간 떨어진 전원에 대단위 규모의 주택 건설이 일어나게 된다. 더 나아가 미국적 발전의 상징이기도 한 이러한 서버비아의 팽창은 단순히 주택 단지 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반 시설들인 쇼핑몰, 학교, 공원 등을 제공하기에 이른다.⁵⁾ 따라서 서버비아의 주민들은 일부러 도심지로 쇼핑몰 나갈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게다가 도심지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갖가지 부작용들인 범죄와 마약 등에서부터 안전한 보금자리를 갖고자하는 중산층들의 욕구와 부합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안락한 아메리칸 드림을 얻기 위해서 미국 공동체가 치른 희생은 너무도 막중하다는 것이 이들의 비판적 인식이다. 또한 이러한 주거양식의 아메리칸 드림을 타 문화에서 모방하려 할 때는 잘못된 전철을 답습하는 위험이

4) Eric Jacobsen, "Receiving Community: The Church and the Future of the New Urbanist Movement," *Journal of Markets & Morality*, Vol. 6, No. 1. (Spring 2003): 63.

5) Andres Duany, Elizabeth Plater-Zyberk, and Jeff Speck, *Suburban Nation : The Rise of Sprawl and the Decline of the American Dream* (New York: North Point Press, 2000), 7-9.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2. 서버비아와 그 문제점들

지금도 미국의 근교 전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급자족형 대규모 신도시 건설, 즉 서버비아는 미국 사회의 몇 가지 독특한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첫째로, 미국은 광활한 국토를 활용할 수 있는 나라다. 엄청나게 넓은 대지가 확보되어 있기에 도시 밖 전원으로 새로운 도시를 팽창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둘째로, 미국은 세계에서 자동차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이다. 미국의 일상생활은 자동차 없이는 상상하기 힘들다. 셋째는 위의 두 가지를 가능케 하는 물적 기반인데, 미국은 세계에서 연료비가 가장 저렴하다는 점이다. 유럽이나 아시아에 비해 2-3배 이상이 싼 연료가 광활한 미국 대지에서 자동차를 통한 기동성 있는 삶을 가능케 했으며 이는 곧 서버비아라는 미국식 근교 주거문화를 만든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미국식 서버비아에는 주요한 문제점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신도시주의 운동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특히 주목한다.

1) 환경오염

서버비아 문화는 풍부하고 저렴한 에너지와 광활한 국토라는 조건을 안고 있지만, 이는 과도한 자동차 의존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석유자원이 이미 생산량의 정점을 넘어서고갈되기 시작한다는 비관적인 분석까지 나오는 마당에 과연 자동차가 받쳐주는 서버비아의 팽창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의문이고, 세계 최대부국이자 강대국인 미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지구촌 전체에 위협이기도

하다. 혹자들은 대체 에너지를 거론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지난 100년간 석유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 세계의 모든 사회 시설과 기반들을 모두 바꿔야 한다는 훨씬 비현실적이고 막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마치 비만으로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사람이 살을 빼기 보다는 바지 벨트를 더 늘리려는 식이다.⁶⁾ 그러한 이러한 위협적인 에너지 소비가 바로 전원도시라는 낭만을 떠 받쳐주고 있다. 널찍한 저택에서 자연을 즐기는 삶을 누린다는 호화스러운 착각 아래 자동차로 인한 매연은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다. 신도시주의자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날마다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전원으로 가기보다, 차라리 도심지를 바꾸어 도보와 자전거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자원의 고갈과 인격적 교류의 부재를 더욱 가중시켜주는 이러한 서버비아적 삶은 조만 간에 석유 생산량의 감소가 현실화되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신도시주의자들은 경고한다. 값싼 공산품 또한 중국과 제 3세계의 싼 노동력을 통해 미국으로 운송되는 것인데, 활용할 수 있는 절대 연료량이 줄어들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극단적으로는 서버비아가 공동화되는 미래의 모습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2) 청소년 문제

미국 사회가 청소년들의 마약 복용, 갱단 결성 등으로 인해 늘 골머리

6) 석유 비축량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들이 있지만, 신도시주의적 전망과 연계해서 다소 비판적인 전망을 펼친 내용은 “The End of Suburbia: Oil Depletion of the Collapse of the American Dream”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검색해보라.
www.endofsuburbia.com

를 잃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도시주의자들은 이러한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 원인 가운데 하나로 서버비아를 지목한다. 부모와 더불어 전원도시의 넓은 집에 살게 된 아이들은 그 대신 주변 이웃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잃어버리고 있다. 집 앞 동네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과 아무 때나 놀며, 지나가는 이웃 어른들과 인사를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요원해진 것이다. 부모들에게 신체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초등학교 연령의 아이들은 그래도 건널 만하지만, 또래 친구들과의 공동체를 갈망하는 십대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에게 서버비아는 거대한 감옥과 같은 곳이다. 만 16세가 되어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운전면허가 있어도 경제 형편 상 자기 차를 소유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는 점점 높아져만 가는데, 십대들의 사회적 삶은 학교와 클럽 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면서 자연적인 교제 권을 잃는 것이다.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관계가 미리 계획과 약속을 세우지 않고는 불가능해진다.

인간이 관계를 이루는 데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계약적"(contractarian) 관계로서, 이는 사람들끼리 기호와 취미의 공유를 통해 성립되는 것이다. 계약적 관계란 합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선택에 의한 관계구축이지만 정밀한 계획에 의한 만남이라서 자연스러운 친밀한 관계로의 연장이 쉽지 않다. 각종 사교 모임 및 클럽 활동 등을 통해서만 어울릴 수 있는 구조다. 반면 또 하나의 관계 유형은 ‘공동체적’(communitarian)인 성격을 갖는데, 이는 지역 단위에서 이웃 간의 우발적이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말한다.⁷⁾ 비록 직업과 취향은 다를 수 있지만 공동의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빈번한 만남을 통해서 순전한 인간적 관계가 형성되는

7) 랜디 프래지, 「21세기 교회연구: 공동체」 차성구 역 (서울: 좋은씨앗, 2003), 128.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청소년 총기 사건들이 유색인종이 몰려 사는 도심지가 아닌 서버비아 지역에서 연속 일어났다는 사실은 청소년들을 옥죄고 있는 공간의 제한성과 파괴성에 관해서 암시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넓은 주택과 쾌적한 환경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의 사회적 대가가 무엇인지를 마주해야 한다는 말이다.

3) 약자들을 위한 배려의 부족

서버비아의 생활은 운전이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문화이다. 이러한 경우에 혼자 운전하기에 몸이 약한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자동차를 기반으로 건설되는 근교 전원 문화는 아무런 꿈도 재미도 없는 곳이다. 그래서 양로원과 같은 공간이 더욱 더 도심지로 파고들어오게 된다. 사실상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모두 계도화된 공간으로 그들의 생활패턴이 좁혀지고 마는 것이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공동체의 경험이야말로 꿈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계도화되는 것은 아이들과 노인들뿐이 아니다. 중산층 서버비아는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사람들을 그룹화하고 있다. 비슷한 수입 규모를 가진 가정들이 이웃을 이루고 있다. 이는 비슷한 욕구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획일적 문화로 나아갈 수 있으며, 다양한 삶의 모습을 나누고 경험할 기회를 잃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조우를 통해서 삶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나누고 서로를 인정하며 존중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다. 기껏해야 미국 사회에서는 “정치적 적절성”(political correctness)을 위배하지 않는 용어 사용과 피상적 대인관계를 지키면 제몫을 다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예를 들어, 흑인을 지칭할 때 “Black”이라는 단어보다 “African American”으로, 장애인을 가리켜 “Handicapped” 보다는 “Physically Challenged”라는 좀 더 완곡하게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

여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상호 표면적인 예의는 갖추지만, 사실상 일상적인 접촉에 있어서는 인종 간, 혹은 경제적 계층 간 멀찍이 거리를 두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호 이해와 협력은 자연스러운 이웃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일어나기 힘들고 단지 “계약적 관계”에 입각해서 특별한 절기에 행해지는 봉사 프로그램이 되고 만다.

4) 공공성의 부재

신도시주의자들은 공동체를 조성해주는 전통적 마을 설계를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고 있지만, 이러한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공적 공간(public space)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이미 1960년대에 미국의 사회학자 제인 제이콥스는 재개발을 통한 서버비아의 건설이 얼마나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지적하며 (특히 당시로는 신혼 근교 도시였던 로스앤젤리스의 범죄율 증가를 주목한다) 범죄로부터 상대적인 안전을 얻기 위해서는 공적인 공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이콥스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공적 공간이란 길가와 옆길이다.⁸⁾ 사람들이 자주 스치고 지나다니는 거리가 확보되면 거리를 지키는 눈들(eyes on the street)이 많아져 인구 밀도가 낮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욱 안전하다는 것이다.⁹⁾

현대 미국의 서버비아와 한국의 신도시, 혹은 뉴타운을 보면 이러한 공적인 공간으로 중요하게 취급되는 곳이 공원과 쇼핑몰이다. 일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에 공적인 영역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신도시주의자들은 오늘날 지나치게 공원의 의미가 부각되었

8) Jane Jacobs,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Vintage Books, 1961), 31.

9) *Ibid.*, 34.

음을 지적한다. 특히 미국의 도시에서 공원이란 이웃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익명의 주민들이 나 홀로, 혹은 가족끼리 산책을 즐기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곳일 뿐이다. 기껏해야 가벼운 인사만 나눌 뿐, 공동체를 위한 공적 공간의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공원의 중요성은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옆길”(sidewalk) 혹은 ‘골목길’(alley)의 기능은 방치되거나 상실되는 경우도 허다하다.¹⁰⁾ 집과 집 사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놓여진 길들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얼굴을 대하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교류의 공간이 될 수 있는 반면, 사람들이 모두 자가용을 이끌고 차고를 거쳐 집으로 들어가면 이웃과 옆길을 통해서 만날 일이 희박한 것이다. 그러나 도시 재개발이 벌어지기 전 사회에서는 집 앞을 걸어 나가면 길가에 노인들이 서로 담소를 나누며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 점에서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버비아의 팽창으로 인한 생활공간의 변화가 이러한 우발적이고 빈번한 공동체적 관계를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¹¹⁾ 이는 또한 이웃 간에 서로를 지켜봐주고 돌봐주는 눈이 부재하게 되고 오히려 범죄에 더욱 노출시킨다는 것이다.

5) 사회 자본의 약화

끝으로 앞의 문제들을 모두 포괄하는 가장 심각한 현상으로 이웃 공동체가 실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웃과의 관계가 얽어지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사회자본이 부족해진다는 의미이다. 사회자본이란 사람들 사이의 긴밀한 상호관계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정보 공유, 상호협력 등의 유익한 가치 등을 말한다. 간단하게

10) Eric Jacobsen, *Sidewalks in the Kingdom: New Urbanism and the Christian Faith*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3), 80.

11) 랜디 프래지, 131-149. 프래지는 이 책에서 공동체적 생활을 위한 다섯 가지의 특징을 열거하는데, 이는 자발성, 유용성, 빈번함, 공동식사, 지역성을 말한다.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말에 담긴 이치와 같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공공정책학 교수인 로버트 퍼트남에 의하면, 현대 사회에서 직장과 집이 멀어짐에 따라 (즉, 서버비아의 경우 직장은 도심지에 있고 집은 교외지에 있는 경우) 통근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고 이는 미국 사회에서 사회자본의 심각한 소실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퍼트남은 통근시간이 10분 늘어날 때마다 사회적 자본(인간관계와 교류)이 10% 줄어드는 것으로 통계를 내리고 있다.¹²⁾ 통근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개인의 시간과 자원 비용이 소모되는 것뿐 아니라, 그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위축시키며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활발한 유기체적 움직임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미국의 서버비아에 사는 평범한 중산층의 삶이란 집에 딸린 차고에서 차를 몰고 나와 도시에 있는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면 다시 왔던 길 그대로 돌아와 차고로 들어오면 끝이다. 이들의 삶 속에는 신도시주의자들이 가장 옹호하는 “사이”(between)가 없다. 동네 담배 가게와 세탁소를 지나며 가벼운 인사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이웃의 공간이 부재한 것이다. 물론 앞 집, 옆 집 사이의 교류는 하겠지만 공적인 삶의 공유는 너무도 축소되어 버렸다.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은 철저히 분리되어 사람들은 자기 동네 골목의 구멍가게가 아니라, 차를 타고 대형 유통 단지로 가서 쇼핑을 하게 된다. 가득 찬 상품과 저렴한 가격, 원스톱 쇼핑이라는 매력으로 유혹하고 있지만, 정작 그곳은 익명으로 스치는 공간일 뿐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은 사라진 곳이다. 사람들은 개인만의 사적인 공간으로 점점 고립되어가고 있으며, 텔레비전과 신문, 인터넷이 유일한 정보의 원천

12) Robert Putnam, *Bowling Alone :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22-24. 혹은 www.bowlingalone.com을 참조하라.

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신도시주의 운동의 대안

1) 전통적 이웃마을의 설계

그러면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신도시주의 운동이 제시하는 대안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이들은 “전통적 이웃마을 설계”(Traditional Neighborhood Design)라는 방안을 내놓는다. 신도시주의에서 전통적 이웃마을의 특징으로 보는 것은 “저층 건물,” “높은 인구 밀도,” “걸어 다닐 수 있는 동네환경,” 그리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혼재”라는 요소들이다.¹³⁾ 또한 가능하면 사람들의 경제 활동과 이웃과의 만남이 한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마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에 덜 의존하는 생활 습관을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는 도시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거주지와 공공장소들이 다양한 사회, 경제적 계층들에 의해서 혼합되고, 공유되는 모습이 건전하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서 한 동네를 형성하는 이웃이라는 지리적 개념은 더욱 더 축소된다. 신도시주의자들은 걸어서 5분이면 동네 중앙이나 공공장소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를 적당하게 여기기도 한다.¹⁴⁾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각종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같은 동네에 있는 은행과 슈퍼, 서점, 양품점 등을 이용하며 사는 지역 경제 단위를 만들어야 한다

13) Philip Bess, "Civic Art and the City of God: Traditional Urban Design and Christian Evangelism," *Journal of Markets & Morality* Vol. 6, No. 1. (Spring 2003): 47-48.

14) Andres Duany and Elizabeth Plater-Zyberk, "The Neighborhood, the District and the Corridor," Peter Katz ed. *The New Urbanism: Toward an Architecture of Community* (Oregon: McGraw-Hill, 1994), xvii.

는 것이다. 또한 한 지역 안에 주거지와 상권이 혼재하는 모습을 장려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조용하고 안정적인 우리 가족만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게가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는 경우가 아주 흔한데, 신도시 주의자들은 주택과 마켓, 커피샵, 세탁소, 서점 등이 한데 어울려있는 혼합된 구획화'(mixed zoning)를 주장한다. 상업 공간들은 동네 주민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2) 신도시주의의 확산

또 다른 양상은 미국 전역에서는 많은 지역관료들이 신도시주의의 지혜를 빌어서 새로운 도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통적 이웃 설계에 입각한 도시 개발 계획이 400여개 이상이며, 포틀랜드 시는 골목길을 살리며 차고를 문 앞 편에 두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위스콘신 주는 12000명 이상이 사는 마을은 전통적 이웃 설계의 지침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¹⁵⁾ 필자가 지냈던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 시 역시 신도시주의에 입각해서 새로운 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원래 백인들이 떠나고 흑인과 남미계 주민들이 늘어나던 도시를 다시 다양한 인종과 생기가 넘치는 곳으로 바꿨는데, 대형 쇼핑센터의 진입을 억제하되 주상복합 공간을 가능한 한 많이 조성하며, 작은 가게들과 커피샵들을 유치하였다. 또한 많은 식당들과 서점, 카페들이 길가에 의자를 비치해서 사람들끼리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였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에 영화, 연극 및 미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들을 풍성히 만들고, 때마다 예술축제를 개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살고 있는 공간을 즐기게끔 해준다.

신도시주의자들은 그들이 진단하는 현대 미국 사회의 질병에 대해 구

15) Jacobsen, *Sidewalks in the Kingdom*, 154.

체적인 처방과 임상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플로리다 해안에 전통적 이웃 설계라는 개념을 구현하는 작은 마을로 씨사이드(Seaside) 공동체를 실험적으로 조성하였다(이 도시는 '씨헤븐'이라는 이름으로 영화 [트루만쇼]의 실제 무대로 사용되기도 했다). 금싸라기 땅은 공동의 공간으로 확보한 다음, 개인 주택이 그 둘레를 이루고 있는데 모두 각각 다른 건축가에 의해서 지어졌기에 저마다 독특한 미관을 갖고 있다. 각 집 앞 마당은 이웃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하였다. 씨사이드 마을은 신도시주의자들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출발한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대안적 삶의 여유에 동참하기 위해 치러지는 대가를 보통사람들이 치르기에 너무 크다는 것이다. 모든 주택들이 동이 났고 한 채당 2백만 불이 넘는 호화 저택이 되어 버린 것이다.¹⁶⁾

4. 신도시주의의 한국적 상관성

그러면 미국의 독특한 지형에서 태동되고 형성된 신도시주의 운동이 한국의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를 던져줄 수 있겠는가? 표면적으로 볼 때, 미국에 서버비아가 있다면 한국에는 신도시개발이라는 상응하는 실체가 있다. 그러나 두 문화에는 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광활한 국토와 저렴한 연료비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위치다. 따라서 미국식 서버비아의 팽창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현재 세계화라는 추상적인 실체가 기실은 미국화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한국의 도시 개발 역시 음으로 양으로 미국적 생활양식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역사에서 도시화는 근대화와 더불어 부상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문화를 해체하고 위협하는 양상을 띠어왔다.¹⁷⁾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서버비아와 한국의 도시

16) 씨사이드 마을에 관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라. www.seasidefl.com

개발이 지니는 공통적 본질요소들에 주목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신도시주의는 20세기 후반 미국식 도시 개발에 대한 대안적 저항운동이었다. 이들이 저항했던 실체는 획일적인 서버비아 팽창으로 인한 이웃 공동체성의 실종과 다양한 건축미의 부재, 그리고 에너지 낭비를 포함한 소비주의에 대한 것들이었다.

1) 공공선의 실종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송호근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세대간의 갈등을 분석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보편적 불신을 갖는 밑바탕에는 공공선을 세워줄 수 있는 권위가 부재하다는 지적을 한다. 민주화 운동 이후 시민단체는 저변 확대에 실패했고, 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제 기능을 상실했고, 기업은 부도덕한 정경유착으로, 종교는 오랜 기복적 관습으로 인해 그 여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공공선의 실종이라는 것이다.¹⁸⁾ 송호근은 이렇게 호소한다.

누가 이 예비시민들에게 공공선에 대한 책임의식을 불어넣어 줄 것인가? 정부도, 기업도, 학교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한국사회의 위기를 재촉하고 있다. 기성세대의 모든 것에 대한 2030세대의 반란과 문화 충돌은 이런 배경에서 이미 잉태되고 있었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¹⁹⁾

종교사회학자인 이원규 역시 공동체성의 상실과 회복에 대한 갈망은 한국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남을 지적한다. 후기 산업사회가 지속될

17) 조용훈, 160.

18) 송호근,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세대, 그 갈등과 조화의 미학」 (서울:삼성경제연구소, 2003), 126-131.

19) Ibid., 131.

수록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관계적 일체감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상실이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공동체 파괴요인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정치적 요인(종속관계, 권력형부조리, 인권탄압), 경제적 요인(실업, 노사분규, 열악한 노동환경), 사회적 요인(가족 해체, 청소년과 노인 문제, 빈민지역, 범죄와 소년비행) 등을 지적하고 있다.²⁰⁾ 그러나 비관적인 전망만 가득한 것은 아니다. 송호근은 지난 2002년 대선 이후에 나타난 세대 간 가치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공선의 회복을 위한 가능성의 실타래를 주목하고 있다. 그는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도 엄연히 존재하지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합의의 공간이 더 넓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²¹⁾ 이는 더 이상 정부와 학교, 종교와 같은 제도적 기관들에 의존하기 보다는, “생활세계의 발견”을 통한 가치관 좁히기²²⁾와 “공동체적 생활양식”²³⁾이라는 전통적 관습을 재발견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2) 지역성의 회복

이러한 공동체적 생활 양식은 한국인들의 정서에 뿌리 깊게 형성된 원형문화로서 예로부터 한국 사회는 계, 두레, 향약 등을 통해 집단적 협력과 공감대를 맞추는 관습에 익숙해있다. 이러한 원형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공동체 문화 운동을 펴는 데에는 직장과 지역이라는 두 가지 축이 존재한다.²⁴⁾ 신도시주의 운동은 주로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장기적 전망으로는 경제 단위와 생활 단위가 통합된 전통적 이웃설계를 구상하

20) 이원규, "후기 산업사회와 인간 공동체" 크리스찬 아카데미 신학연구 위원회 편, 『공동체 신학의 모색』 (서울: 전명사, 1992), 199-200.

21) 송호근, 268.

22) Ibid., 268.

23) Ibid., 271.

24)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평생교육연구센터,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국민의식 대전환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1994), 67.

기 때문에 이 두 축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 문화운동은 명망가와 활동가 위주의 엘리트적 시민운동이 아닌 일반시민에 의한 보편적 운동으로 지역단위에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²⁵⁾ 대중의 일상적 참여를 권장하는 신도시주의 운동과도 부합된다. 게다가 지역 공동체 운동은 지자체 시대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결국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해법은 인간의 일상이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지역성 및 공간성과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이다. 이는 미국에서 공공선의 실종을 탄식하며 지역 단위에서 새로운 공동체 도덕 회복 운동에 기대를 걸었던 지식인들의 전망과도 맥을 같이 한다.²⁶⁾ 따라서 오늘날에 와서 지역 단위에서 도덕적 선이 회복되는 생활문화의 구축을 시도하는 것은 화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 공공선 회복 운동은 도시의 공간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지 않고서는 물리적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3) 최대공간과 최소공간의 양극화

건축학자인 임석재에 의하면 모든 공간에는 최대공간과 최소공간이라는 기본 설계구도가 배경을 이루고 있다. 최대공간은 공공의 영역(대형마켓, 고층아파트, 전시장, 터미널, 역사 등)이고, 최소공간은 사적인 영역(도서관 책상, 고시원 칸막이, 휴대폰, 인터넷 등)을 말한다. 최대공간은 사람들의 어울림이 있는 곳이라면, 최소공간은 개인이 자기만을 배려할 수 있는 곳이다. 건축의 기본 정신이 최대공간을 도시조직의 공공 영역의

25) Ibid., 68.

26) Robert Putnam, Lewis Feldstein, & Donald J. Cohen, *Better Together: Restoring the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3), 7-8. 저자들은 여기서 공공선 회복을 위한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지역성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야기를 통한 열린 관계 구축이다. 아울러 비슷한 주장을 앞서 펼친 지식인으로는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 「덕의 상실」(서울: 문예출판사, 1997)이 있다.

연장으로 보되, 그 속에 담기는 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의무화함으로써, 양 공간이 서로 개별성을 갖으면서도 상호 보완될 때 유익함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²⁷⁾ 개인이 집단과 분리되는 동시에 상호 어울릴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최대 공간과 최소공간의 균형적 공존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소공간 속에서 개인은 더욱 더 외톨이가 되고 축소 지향적 존재로 빠져들고 만다. 임석재는 한국형 최소 공간(대표적으로 고시원의 경우)에서는 공공 영역과 단절된 채 자학적인 소외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한다.²⁸⁾ 반면 최대공간들은 상업성에 치중되거나 하이테크의 치장 이면에 인간미를 잃은 무감각한 이미지로 전시되어 있다.²⁹⁾ 갈수록 심해지는 개인주의를 견제하고 타인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공공 영역, 즉 최대 공간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최대공간의 역기능과 관련해서 한국의 현대 도시 풍경을 잠식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문화에 대해 우려하는 소리도 있다. 김진애는 대단지 위주의 아파트 개발은 경제적, 미적인 위기 외에도 사회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러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은 사람과 사람이 익명성 속에서 얼마든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⁰⁾

27) 임석재, 「건축, 우리의 자화상」(서울: 인물과 사상사, 2005), 212-213.

28) Ibid., 213.

29) Ibid., 217.

30) 김진애, 「우리도시 예찬: 그 동네 그 도시의 매력을 찾아서」(서울: 안그라픽스, 2003), 289. 예를 들어, 대형단지 중심의 개발은 대형화된 상업공간을 수반한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 쉽게 만나서 대화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동네 슈퍼마켓 등이 사람들이 서로 익명성을 유지한 채 쇼핑이라는 기능에만 전념하는 중성적 공간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대신 그는 도시의 미학을 거론하면서, 한국 도시가 원래 지니고 있었던 “집중적인 생김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시도한다. 비록 여러 단점들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건축 유형이 뒤섞여 있고 여러 문화가 혼재하고 있으며 상업 공간과 주거 공간이 공존하기에 역사가 배어있고 자발성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느껴진다는 것이다.³¹⁾ 이러한 혼재된 다기능 공간은 사람들의 어울림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 김진에는 도시의 매력은 사람의 활동범주 안에서 체험이 가능하고, 타인과의 의미 있는 우연한 어울림이 있는 “동네 모임”에 있다고 주장한다.³²⁾ 따라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과 사람이 쉽게 만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도시 생활의 매력이라면, 이의 실현은 자가용을 몰고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 폐쇄적 대단위 아파트 단지 보다는 우후죽순 자발적으로 생겨난 동네가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어울림은 공동체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깊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

4) 거리와 마당의 활용

김진에에 의하면 서양의 공동 공간이 공원과 광장이었다면 한국인의 공동 공간은 전통적으로 마당과 거리에 있었음을 주목한다. 마당 문화는 자기 집의 앞뜰을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분명하고 가까운 사람끼리 모이는 공동체 공간이다. 그에 반해 거리는 오밀조밀한 상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성을 갖고 있다. 이 거리 문화가 한국인들이 가장 마음 편하게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³³⁾

31) Ibid., 281-286.

32) Ibid., 268-272. 비록 김진에는 이 책에서 “신도시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의 표현이나 사상은 신도시주의와 깊은 연대감을 이루고 있다.

33) Ibid., 246-249.

이러한 점에서 신도시주의 운동이 중요하게 여기는 옆길과 골목의 공간은 친밀하고 자발적인 만남을 용이하게 하는 공공의 공간인 것과 같이 한국에서는 마당문화와 거리문화를 살리는 과제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그러나 굳이 차이를 지적하자면, 미국의 옆길과 골목은 전적인 공동의 소유 공간일 뿐인 반면, 한국의 마당은 주인이 자신의 공간을 공공에게 개방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한국인 고유의 정에 기초해서 ‘우리 됨’이 확인된 관계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적 생활양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도시주의가 공공의 장소라는 제 3의 공간을 중요시 여긴다면, 한국적 공간 문화는 자신의 공간을 개방하는 개방적 공동체 정신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볼 때, 신도시주의 운동은 비록 미국의 지형에서 비롯되었지만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고 서구적 가치관에 더욱 더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공간 문화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신도시주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더욱 유리한 위치에 있다. 좁은 국토와 전래의 공동체적 생활 풍습은 한국 사회에서 공공의 선을 회복하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 될 것이며 이는 신도시주의를 통한 기독교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다.

5. 신도시주의와 기독교의 만남

공간은 중립적이지 않다. 특히 건축 공간에는 사회적 관계가 담겨져 있다. 도시의 공간은 특정한 사회적 삶의 유형을 강화시키고 재구성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상징적 질서를 부여하는 정신적 힘을 소유하고 있다.³⁴⁾ 정신은 공간에 영향을 주고, 또한 공간은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

다. 이렇듯 공간이 관념의 세계와 긴밀하게 상호교류를 한다면, 이는 신학적 성찰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현양식은 공간을 포함하고 있었다.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존재와 표현을 관념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지만, 공간은 창조의 형식이자,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되는 곳이다.³⁵⁾ 따라서 공간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드러나고 그 목적을 성취해가는 선교의 현장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도시주의의 착상과 실천이 기독교 신학과 선교 의제에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는지 살펴보자.

1)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는 최근 교회와 신학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우리를 서로, 그리고 자연 피조물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지으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발판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 만물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비전을 신학의 중심주제로 삼고 있는 분위기이다. 게다가, 이러한 신학의 총론뿐 각론의 문제들, 즉 치유와 전도, 교육, 리더십 등에 있어서도 공동체 신학은 거의 모든 주제의 중핵으로 잡고 있다.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보편적 본질과 더불어 역사적인 진정성을 유지해 온 교회의 실제적 모습이다. 지역교회와 지역문화의 관계는 밀접한 상호성을 갖고 있다. 교회는 지역 공동체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이를 선하게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³⁶⁾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서버비아의 팽창이라는 흐름 속에 살면서도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기독교의 핵심적 가치가 교회와 신학이 아닌 “신도시주의”라는

34) T. J. Gorringer, *A Theology of the Built Environment: Justice, Empowerment, Redemp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27.

35) Ibid., 43.

36) 조용훈, 169.

세속진영의 운동에서 먼저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닌가? 신도시주의 운동이 그 동안 교회가 소홀했던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을 앞서 주창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만하다. 교회가 먼저 제시하고 실천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부채의식을 느낄 만하다.

혹자들은 대형교회가 지니고 있는 인력과 자원들을 볼 때, 전도에 더욱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주장을 자주 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교회로서의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명을 주된 고려사항으로 삼는다면 단정 짓기 힘든 구석들이 있다. 대형교회들에 대한 라일 샬러의 분석에 의하면, 대형교회들이 효과적인 전도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근 지역 공동체 주민들(자동차로 20분 거리 내에 거주하는)의 0.5%~2%만이 그 교회에 온다는 것이다.³⁷⁾ 따라서 많은 대형교회들이 효과적인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성장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신도시주의는 지역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공동체성의 과제에 대해서 새로운 경각심을 던져 주는 것이다. 이는 곧 전통적 이웃 마을의 설계를 반영하는 전통적 이웃 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된다.

원래 텍사스 교외에 위치한 대형교회의 목사였던 랜디 프래지는 신도시주의의 주장에 깊은 공감을 한 뒤 기존 교회 공동체의 모델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그는 “모든 구성원이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는 의미 있는 관계성의 발전은 교회라는 이름에 담긴 중심 의미다”³⁸⁾라고 주장하며, 신도시주의적 의미에서 지역 공동체 교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교회가 공동체적 이웃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몇 가지 실제적인 행

37) Lyle Schaller, *Discontinuity and Hope: Radical Change and the Path to the Future* (Nashville: Abingdon, 1999), 57-60.

38) 프래지, 38.

동지침들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통근시간을 줄일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라. 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정착하라. 자신이 교류할 지역 바운더리를 설정하라. 앞뜰에서 함께 기도하라. 이웃과 시간을 보내고 이웃을 모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라 등이다.³⁹⁾

위와 같이 지역사회와 문화의 형편에 따라 교회가 지역공동체와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끊임없이 생산될 수 있다. 문제는 지역 문화는 지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참여를 위해서 교회는 지역 공동체의 교류를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2) 열린 공간의 선교적 가능성

신도시주의의 성찰을 빌려올 때, 도시 안에서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려는 교회는 바로 계약적 관계를 넘어서 공동체적 관계에 의한 만남을 추구해야 한다. 이웃이 자연스럽게 오가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교회를 통해서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버비아의 팽창에 맞춰 발 빠르게 이동하기보다, 교회가 도시의 아름다움과 생기를 회복하는 공간으로 바꿀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캘리포니아 북부 치코(Chico)시에 위치한 메리암 파크(Meriam park) 교회는 외곽으로 떠나기보다 다운타운에 남아 있으면서, 도시 공동체 회복의 중심 기능을 하기 위해 야구장과 더불어 중앙 광장에 자리 잡고 있다.⁴⁰⁾ 그리고 주변에는 공원과 셋길이 단장되어 있으며, 교회 앞을 편리한 주차장으로 사용

39) Ibid., 156-164. 그는 더 나아가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이자 구도자 중심의 공동체로 유명한 월로우크릭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신도시주의적 이상을 구현하며 월로우크릭 교회를 “이웃 교회”로 변신시키는 모색을 하고 있다. 교인들에게 교회 캠퍼스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자신들의 지역 사회 속에서 더욱 활발한 모임과 아웃리치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고 한다.

40)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라 . www.tndwest.com/meriampark.html

하기보다 사람들이 쉽게 넘나드는 "제 3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점에 있어서 그 동안 교회 성장학이 제시한 교회의 공간적 기능에 대한 제안사항들은 지역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과제를 상정할 때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피터 와그너는 교회의 전략적 위치를 중요시 여기고, 그 지역에 대한 인구 조사와 지형 조사를 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⁴¹⁾ 케논 칼라한 역시 교회 내부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하는데, "교회 안에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탁아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또는 "교회를 보여주는 표지판이나 상징적인 모형이 눈에 잘 띄어야 한다"는 등이다.⁴²⁾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모두 일리가 있고 교회 공동체의 원활한 진행과 홍보를 위해서 적절하다. 그러나 교회 성장학의 이러한 주장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신도시주의적 안목에서 볼 때, 교회 건물과 공간 그 자체가 지역 사회에서 효과적인 공동체성을 진작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기독교 선교에 핵심에는 성육신의 사건, 즉 세상 한 가운데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 원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 건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 건축과 디자인이 그 동안 내부 구조와 장식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교회와 지역 공동체가 공유하는 공간에는 주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장로교 목사로서 신도시주의운동의 기독교적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에릭 제이콥슨은 공공의 공간을 전도에 효과적으로 활용한 예로

41) Peter Wagner, *Church Planting for a Greater Harvest: A comprehensive Guide* (Ventura, CA: Regal Books, 1990), 80-93.

42) Kennon L. Callahan, *Twelve Keys to an Effective Church: Strategic Planning for Mission* (New York: Harper San Francisco, 1983), 79-84.

학생 선교단체인 영 라이프(Young Life)를 거론한다. 영 라이프의 전도 전략은 특별히 공간에 대한 감각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전통적인 교회라는 공간을 벗어나 젊은이들의 공동 공간인 학교와 길거리를 전도의 본거지로 삼았다는 것이다.⁴³⁾ 이런 점에서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공공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원리라고 볼 수 있다. 공동 공간이란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접촉을 갖는 곳이다. 이는 선교의 거점이 성스럽게 분리된 영역이 아닌 인간의 직접적 교류가 신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곳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성스러운 공간으로의 초대가 아닌 일상의 영역에서 어울릴 수 있는 공동 공간으로 침투해야 함을 뜻한다.

사회학자 에드워드 홀(Edward Hall)은 인간의 사회와 문화에는 다양한 언어적 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인간관계의 종류에 따라 공적인 공간, 사회적 공간, 인격적 공간, 친밀한 공간이라는 4가지 공동체가 있다고 주장한다.⁴⁴⁾ 최근에 교계와 신학계에서는 교회 성장과 양육을 위한 소그룹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 소그룹 안에서 관계 중심의 교제와 제자훈련은 성경의 기본 지침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러나 네 가지 공간, 즉 예배의 공간 (공적 공간), 친교의 공간 (사회적 공간), 인격적 공간 (소그룹), 친밀한 공간 (멘토링 관계)의 동등한 중요성을 인식할 때, 한편으로 과도한 소그룹에 대한 강조가 자칫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토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는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았다. 그리스도

43) Jacobsen, *Sidewalks in the Kingdom*, 82.

44) Edward Hall, *The Hidden Dimension*(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1966), 111-117. 에드워드 홀의 이론을 바탕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네 가지 공간의 적절한 활용을 주장한 책으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Joseph R. Myers, *The Search to Belong: Rethinking Intimacy, Community, and Small Groups* (Grand Rapids: Zondervan, 2003), 41-52.

인의 영적 리더십은 공적인 장소에서도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인간을 섬기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위의 네 가지 공간들이 긴밀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교인들만의 교제 권에 갇혀, 세상 속에서 공적인 삶을 살 기회가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선교와 전도를 위한 접촉의 기회도 희박해지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신도시주의의 안목에 의하면, 교회의 물리적 공간이 가장 힘써야 할 것은 교회의 외부와 위치를 자연스러운 교감이 있는 ‘차이’로 만드느냐하는 과제이다. 예를 들어, 교회의 앞 마당이 주일이면 복잡한 주차장으로 변모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민들이 지나가는 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만한 문화적 공간으로 바꾸는 과제를 들 수 있다. 교회가 세상과의 ‘사이’에 자연스런 인격적 교제를 오가게 하는 공적 공간을 만들어 영적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깊은 갈망을 어루만지시는 성령의 손길을 전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을 위한 환경이 되리라 기대한다.

3) 예술로서의 전도

에드워드 홀은 공간은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다른 메시지가 형성되며, 공간의 외양이 특별한 감성적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이다.⁴⁵⁾ 공간은 추상적이고 정태적인 대상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가톨릭 교인이자 건축학자로서 신도시주의 운동에 몸담고 있는 필립 베스는 현재 로마 교황인 라칭거의 이론을 빌려 기독교 변증을 예술로 볼 수 있는 착상이 신도시주의 운동을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도시는 아름다운 건축이 그 자체를 초월할 수 있는 정황을 제공해준다. 이

45) Edward Hall, *The Silent Language*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1959), 208.

는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에게 교육적, 전도적 동력을 심어주는 것이다. 교회 건물들은 전통적으로 천상의 도시를 대변하고 열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때로 효과를 거두었지만, 하나님의 도성을 전파하는 직무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외 지역에 파문될 때 훨씬 힘들어지게 된다.⁴⁶⁾

직접적인 복음의 전달이 언어를 통한 명제적 전도라면, 건축물과 예술적 가치를 통한 전달은 사람들의 정서와 분위기를 통한 전도가 될 것이다. 교회의 앞마당이 넓은 주차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넘나들 수 있는 문화 마당으로 기능한다면 그 자체가 교회의 열린 포용력을 전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이다. 공간 예술은 직설적인 전달보다는 암시적 전달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 구술 언어와 활자의 기능이 다매체적 미디어로 확대되는 때에 미적이며 공동체적인 공간은 기독교 복음 전도에 있어서 새롭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때가 되었다.

4) 회심과 사회자본

끝으로, 신도시주의가 기독교 전도에 제공하는 의미로는 회심의 사회적 성격을 다시금 부각시켜 준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회심은 전도자의 설득과 잠재적 회심자의 결단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의 회심 연구는 회심에 있어서 최소한 세 가지 정도의 경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스콧 맥나잇은 회심에는 예전적 과정(liturgical process), 사회화(socialization), 인격적 결단(personal decision)이라는 지향성이 기독교 전통에 따라 존재해왔음을 주장한다.⁴⁷⁾

46) Philip Bess, 52.

47) Scot McKnight, *Turning to Jesus: The Sociology of Conversion in the Gospel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2), 180.

복음주의 개신교는 그 동안 인격적 결단을 강조해온 반면, 가톨릭은 예전적 과정을 거치는 것을 회심의 입증이라고 간주해왔다. 반면 사회화라는 회심의 경로는 종교사회학계에서 더욱 연구되었는데, 로드니 스타크와 로저 핀케의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회심 사례는 일관된 삶의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 보다는 주로 긴밀한 사회적 유대관계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⁴⁸⁾ 따라서 명제적인 증거보다는 주변 관계가 특정한 종교인들로 형성된 사회적 자본에 지배되고 있을 때 회심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종교사회학적 연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 인간의 존재 내면에 심겨진 영적인 갈망을 소홀히 여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교훈은 전도와 회심이 즉각적 결단의 소산이 아니라, 삶의 나눔을 통한 과정에 근거함을 조명해준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웃과의 관계 과정을 통한 사회적 자본 구축에 충실할 필요를 다시금 느끼게 해준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실천방안은 한국의 마당 문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자신의 공간을 개방하는 나그네 대접(hospitality)일 수 있다. 교회의 앞마당을 지역사회의 공동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자동차 이용을 위한 편의적 공간이 아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연히 지나다가 멈출 수 있는 물리적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성경에 일관된 명령이자 교회의 오랜 전통이었다. 여기에는 지역 교회의 공간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는 시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장소는 특정한 아우라(aura)를 갖고 지역 공동체 내 사람들의 관계와 습속을 양산한다.⁴⁹⁾ 즉, 그 공간만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

48) Rodney Stark and Roger Finke, *Acts of Faith: Explaining the Human Side of Religion*(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117.

49) 김무경, “사교성의 차원과 그 공간” 『일상속의 한국문화: 자기성찰의 사회학 2』 일상문화연구회 편 (서울: 나남출판, 1998), 129.

서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 교회의 건물과 그 공간은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명령한 환대의 아우라를 온전하게 뿜어낼 수 있을 것인가? 개인주의화되고 고립화되어가는 문화 속에서 이웃과의 자연스러운 친교의 공간을 제공하는 일은 선교적 측면에서 사회자본 구축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III. 결 론

최근 선교학계에서는 교회론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그 동안 교회가 지나치게 공간 중심으로 이해되어 온 점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이 제기되었다.⁵⁰⁾ 교회는 우선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긴급하고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교회가 한 지역에서 선교적 공동체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신체적, 물리적 공간이 갖는 의미가 새롭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공간에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적 구원 경륜 또한 물리적 공간 속에서 일어났다. 그러한 점에서 신도시주의는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공간이 갖는 신학적, 실천적 비중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그 동안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도시화 현상에 대해서 적잖은 관심을 갖고 선교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왔다. 지금까지의 도시 선교에 대한 주된 접근은 주로 도시화로 인한 부정적인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주력하는 양상을 띠어왔다. 도시는 빈곤과 환경오염 등이 가장 현저하게

50) Geogr R. Hunsberger, "Missional Vocation: Called and Sent to Represent the Reign of God" Darrel L. Guder ed.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1998), 79-81.

일어나는 곳이라는 점에서 해방적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유형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로 서구사회의 경우에) 범죄와 마약, 매춘, 청소년 비행이 만연하는 사단의 거점이자 영적 전투의 최전선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분명 도시 생활은 치열한 도덕적, 정신적 싸움이 날마다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의 이러한 특별한 현상들에 주목하는 일 외에도 도시 일상에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신학적 접근의 틀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도시는 일상의 터전이고 인간의 성품과 도덕성이 형성되는 무대다. 미적 감상과 교류가 생겨나는 곳이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세상을 영원한 거주지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렘 29:7). 이 평안 (shalom)은 전인적인 평안을 말한다. 인간의 정신 뿐 아니라 몸을 내딛고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에서도 평안은 실천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도시 문화 곳곳에 신의 도성을 반영하는 밑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질 때 비로소 공동체를 위한 도시 선교의 중대한 전환 국면이 이루어질 것이다.

K C I

참고문헌

<영문서적>

- Bess, Philip. "Civic Art ant the City of God: Traditional Urban Design and Christian Evangelism." *Journal of Markets & Morality*. Vol. 6, No. 1. Spring 2000: 33-57.
- Callahan, Kennon L. *Twelve Keys to an Effective Church: Strategic Planning for Mission*. New York: Harper San Francisco, 1983.
- Duany, Andres and Elizabeth Plater-Zyberk, and Jeff Speck. *Suburban Nation : The Rise of Sprawl and the Decline of the American Dream*. New York: North Point Press, 2000.
- Gorringe, T. J. *A Theology of the Built Environment: Justice, Empowerment, Redemp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Gudder, Darrell. L. ed.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1998.
- Hall, Edward. *The Hidden Dimension*.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1966.
- _____. *The Silent Language*.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1959.
- Jacobs, Jane.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Vintage Books, 1961.
- Jacobsen, Eric. "Receiving Community: The Church and the Future of the New Urbanist Movement." *Journal of Markets & Morality*. Vol. 6. No. 1. (Spring 2003): 59-79.
- _____. *Sidewalks in the Kingdom: New Urbanism and the Christian Faith*.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3.
- McKnight, Scot. *Turning to Jesus: The Sociology of Conversion in the Gospel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2.
- Myers, Joseph R. *The Search to Belong: Rethinking Intimacy, Community, and Small Groups*. Grand Rapids: Zondervan, 2003.
- Putnam, Robert. *Bowling Alone :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 Putnam, Robert, Lewis Feldstein, & Donald J. Cohen. *Better Together: Restoring the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3.
- Schaller, Lyle. *Discontinuity and Hope: Radical Change and the Path to the Future*. Nashville: Abingdon, 1999.
- Stark, Rodney and Roger Finke. *Acts of Faith: Explaining the Human Side of Religion*. Berk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 Wagner, Peter. *Church Planting for a Greater Harvest: A comprehensive Guide*. Ventura, CA: Regal Books, 1990.

<국문서적 (번역서 포함)>

- 김진애. 「우리도시 예찬: 그 동네 그 도시의 매력을 찾아서」 서울: 안그라픽스, 2003.
- 랜디 프레지. 「21세기 교회연구: 공동체」 차성구 역. 서울: 좋은씨앗, 2003.
- 미샤 맥루한.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박정규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평생교육연구센터.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국민 의식 대전환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1994.
- 송호근.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세대, 그 갈등과 조화의 미학」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 「덕의 상실」 서울: 문예출판사, 1997.
- 일상문화연구회. 「일상속의 한국문화: 자기성찰의 사회학 2」 서울: 나남출판사, 1998.
- 임석재. 「건축, 우리의 자화상」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05.
- 조용훈.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회의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제 10집 (2005): 153-181.
- 크리스찬 아카데미 신학연구 위원회 편. 「공동체 신학의 모색」 서울: 전망사, 1992.

<웹사이트>

www.endofsuburbia.com

www.tndwest.com/meriapark.html